아픈 중생 고통 어루만지는 '화엄의 꽃'



부산 화엄회는… 1999년 4월 창립된 부산경남지역 병원 자원봉사단체다. 현재 회원은 42명이며 전원 비구니 스님들이다. 처음에는 스님들이 병원법당 운영을 위해 결성한 모임이었다. 현재는 부산대병원 환우 돕기를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신병교육대 후원, 네팔 장학금 지원 등으로 범위를 넓혀 복지 및 봉사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구호 단체인 더프라미스를 통해 미얀마 학교 건립 불사에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道伴의 향기 부산화엄회

우리는 20년 봉사 도반

1999년 4월부터 봉사 시작해
부산경남지역 병원 봉사단체
현재 42명 비구니스님이 활동
부산대 병원 환우돕기에 주력

1년에 한번 초파일 공양 행사
형편 어려운 환자 수술비 후원
군불교 및 네팔 장학금 지원도

글=김주일 기자 · 사진=하성미 기자

"어려운 환우들에게 수술 지원금을 후원할 때 너무나 뿌듯하고 보람이 큽니다. 그 뒤에 후원 환자 수술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언제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법담을 나누는 우리 화엄회 도반들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소중하고 좋습니다." 〈서운암 주지 상영 스님〉

"2015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화엄회 회장 소임을 맡고 있을 당시 미얀마 마궤이주 낫마욱에 오보중학교를 회원들끼리 함께 모연해 지어 준 일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새로 지어진 학교에 다닐 설렘에 가득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생각하니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감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前 화엄회 회장 현수 스님〉

"화엄회 활동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회원 스님들이 함께 가서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도반의 향기를 말으며 같이 성장 발전해 온 것이죠. 또 한가지는 53사단을 방문해 음향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군 포교 활동을 펼친 것입니다. 매달 군장병 불자들을 위해 정성껏 자장면을 대접하면, 맛있게 먹던 젊은 군장병들의 즐거운 표정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모든 봉사행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 함께 라서 가능한 일들이었죠." 〈반야선원 주지 수현 스님〉

"부산대 병원 봉사를 할 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한 거사님의 손이 펴지지 않는 증상이 있었죠. 불자분이라 저희가 기도를 해 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거사님 부인이 찾아와 뵙기를 요청한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기도 덕분에 거사님 손이 펴져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사님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다 되어가니 자신 보단 그동안 고생한 자기 집사람을 위해 저보고 기도 해달라"고 요청 합디다. 가족애가 진하게 느껴진 그 감동스런 장면이 지금도 선합니다. 화엄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면 우리 회원 스님들은 어느 곳으로 봉사 활동을 가도 상을 내거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이죠. 정기적인 나눔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외국인과 병원 환자)의 소식을 접하면 그 자리서 대부분 십시일반 모아 정성껏 후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원력을 세우면 모두 이뤄지고 가능해져 행복하죠." 〈연화사 주지 성안 스님〉

병환의 고통으로 생과 사의 막다른 길목에 있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그래서 병원은 늘 멀리하고만 싶다. 아니 솔직히 말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회원들끼리 조를 짜고 돌아가면서 심신이 나약해진 환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병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부산화엄회 회원 스님들이다. 그 중심에는 초대 회장을 거쳐 현 회장으로 부산 비구니 스님들의 봉사 모임인 화엄회를 이끌고 있는 상화 스님이(부산 천태암 주지)이 있다.

화엄회는 창립 이후 줄곧 20년 동안 부처님오신날에는 부산대 병원서 환자들의 쾌유를 발원하는 연꽃 등과 후원물품 나눠주기 행사 및 환우들을 위한 공양 행사를 펼친다. 회장 상화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아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공덕이 가장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연꽃에 새겨 병마로 고통받는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죠. 처음에는 환자들이 스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하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지요.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환자분들에겐 문전박대 받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런 진심들이 전해졌는지 이제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우리 회원 스님들에게 스스럼없이 합장할 정도로 반겨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쾌유 발원을 위한 기도도 부탁하죠."

이는 오랜시간 우여곡절을 함께 겪으며 독려하고 봉사 활동을 펼쳐온 부산화엄회 소속 스님들이라면 금방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1999년 4월 창립된 부산화엄회는 부산경남지역 병원 자원봉사단체다. 현재 회원은 42명이며 전원 비구니 스님들이다. 처음에는 스님들이 병원법당 운영을 위해 결성한 모임이었다. 현재는 부산대병원 환우 돕기를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신병교육대 후원, 네팔 장학금 지원 등으로 범위를 넓혀 복지 및 봉사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구호 단체인 더프라미스를 통해 미얀마 학교 건립 불사에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 봉사에 나오는 스님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교대로 전 병실을 돌며 심신이 지친 환자들의 손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용기를 북돋워준다. 정기적으로 쾌유 기도도 해준다.

특히 1년에 한번씩은 부산대병원 환자들과 용역노동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잔치를 열어주며 광수 공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부처님오신날 즈음해 형편이 어려운 환자 5명을 선정, 치료비 지원도 해줬다. 이외에도 회원 스님들은 한달에 한번씩 매월 음력 19일 정기 회의를 하는데, 이때 해외 국가재난과 불교계의 큰 불사나 행사 소식을 접하면 십시일반 후원 모금을 통해 돕기도 한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고치현 순례 사찰 (하)

B5
문화
'한국의 명인명무전' 100회 '名不虛傳'

B6
학술 · 문화재
동국대 세불연, 울산대 원효硏 세미나